

탄 원 서

사 건 : 2009 고향 930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27형사부(나)

피고인 : 김영근, 지식준

탄원인 : 0 0 0 (소속 및 직위)

탄원인 주소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이 부분 자신의 소개를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오늘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산 망루사건의 피고인인 김영근, 지식준님 앞에 놓인 무거운 고통을 벗겨 주실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지인을 통해 얼마 전 두 피고인에게 검찰이 7년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용산사건에서 망루와 남일당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리와 허리에 중한 부상을 당한 김영근, 지식준 님에 대해서는 간간히 수술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 왔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었는에도, 여전히 재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었고, 7년이 구형되었다니, 정말 놀라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용산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한 참사입니다.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말하고 있듯, 용산참사는 이윤의 논리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 아니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한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발만능주의를 부추기던 이들에 현혹되어, 탐욕을 키워가던 우리사회의 공동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참사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1년여 동안, 종교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희생된 철거민들을 추모하기위해 용산참사 현장을 찾았던 것입니다.

현재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처럼 조직화된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이웃입니다.

피고인 김영근 님은 도시외곽에 1천만 원짜리 전세 집에서 네 식구가 살아오다가 철거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식준 님은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8년간 일구어 온, 그리고 이제는 7살 난 아이의 미래를 꾸려나가야 할 가게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시대의 가난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천만 원짜리 변두리에 허름한 집이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식당이지만, 우리 가족의 삶 전체가 달린 곳이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록 용산철거민들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철거민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용산철거민들과 함께하려 했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앞에 선 철거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다름없던 다섯 분의 철거민 이웃들이 죽었고, 가까스로 생존한 동료 철거민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피고인들이 오랜 동안 떨쳐내지 못할 고통입니다.

특히, 그 날의 사고로 허리와 다리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평생 몸으로 고통을 겪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가던 분들로 더욱 심적인 고통이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어느 종교인은 “용산의 어제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용산참사는 다른 이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재판장님. 가난하지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던 정황과 그들과 같은 아픔을 느끼며 함께하려 했던 피고인들의 마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1년 1월 일

이 름 : (서명)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나) 재판부 귀중